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디오21’

다큐라마 <투사열전>

PD 신지영

라디오방송은 FM이나 AM만 있지 않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열면 그곳에는 또 다른 라디오방송들이 있다. 지난 2월 24일 ‘라디오21’ ([www.radio21.co.kr](http://www.radio21.co.kr))이란 이름으로 인터넷 라

디오방송이 개국했다. 이 라디오방송은 종일 편성의 첫 인터넷 라디오방송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위한 방송을 자신의 지향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다. 지향답게 외국인노동자와 동성애자가 디제이를 맡기도 하고, 아줌마를 위한 방송이

# 목숨걸고 싸웠던 민주화운동의 피와 땀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시사풍자 개그프로그램도 구성되어 있다.

그 편성표에서 낮 2시부터 약 15분 동안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큐라마 〈투사열전〉이다.

〈투사열전〉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당시 인물들의 육성을 통한 이야기를 다큐형식과 드라마형식을 섞은 라디오드라마다.

지난 3월 3일 첫 방송을 시작해 이제 갓 한달이 되어가는데 그 동안 이인영, 양준석, 김 신, 김영대 등 네 사람을 통해 80년대 학생운동사와 노동운동사를 방송했다. 한 주에 한 인물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민주화운동 경험을 직접 듣거나, 성우들이 재연하다보니 당시 민주화운동의 '야사(野史)'를 생생히 들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피디는 스물다섯의 젊은 남자다. 이 젊은 피디는 다른 작가분과 함께 글을 직접 쓰고 제작하는 〈투사열전〉의 장본인이었고, '라디오21'의 전략프로그램(라디오21' 대표이사 김갑수씨는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라디오21'의 전략프로그램으로 이 〈투사열전〉을 꼽았다)을 제작하고 있었다. 민주화운동역사 프로그램이니 나이가 좀 있거나 386세대이겠거니, 신지영이라는 이름을 보며 여자겠거니 했던 첫 지레짐작 모두가 빗나갔다.

“처음에는 정치풍자드라마를 구상 중이었는데 대표인 김갑수씨가 이런 형식의 다큐라마를 제안했어요. 386세대들과 어울리는 술자리마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옛 민주화투쟁 이야기, 그 무용담들이 참 재미가 있고 의미도 있더라면서 그 민주화투쟁 야사들을 이런 형식으로 담으면 어떨지 제안하셨습니다”

주로 서정적인 젊은 라디오드라마를 만들던 그가

시사성이 짙은 프로그램을 맡은 것도 처음이었다. 이렇게 시작되어 자옥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거리마다 밀려 들었던 민중의 파도와 민주화를 위해 외쳤던 그 함성이,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살아있는 역사가 민주화투사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이다.

첫 주에 방송된 이인영씨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첫 의장이었고, 두 번째 주에 방송이 된 양준석씨는 1988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으로 현재도 울산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 김 신씨는 1986년 애국학생투쟁연합의 의장으로 '건국대항쟁' 당시 지도부였으며, 3월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김영대씨는 청계피복노동조합에서 노동운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앞장에서 있는 분이다.

그들 하나하나 목숨 걸고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그 치열한 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새삼 감회에 젖기도 하며, 아직도 아픈 상처에 힘들어하기도 한다.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 한결 더 당시의 애절한 민주화에 대한 기억이 다가온다.

이인영씨는 87년 이한열열사 영결식이 아직도 뚜렷이 기억에 남아있다고 했다. 서울역 앞에 모인 장례참여 인파들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토론 끝에 해산하자는 의견을 설득해,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을 강행하였다. 전투경찰들 사이 사이를 인파가 뚫고 지나가면서 경찰을 무장해제 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대열 앞에서 일어난 우연한 마찰로 경찰은 순식간에 최루탄을 정신없이 터뜨렸다. 무수한 최루탄에 시위대는 아수라장으로 흩어져버렸다. 솟아오르던 투쟁열기가 맞은 첫 패배로 그는 '내가 잘못 이끌었구나' 하는 큰 자책감에 시달렸고 그 후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던 것이다.



그때 가졌던

생각과 꿈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신감 있게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

-양준석

86년 건국대 항쟁 당시 전국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의장이던 김 신씨에게도 당시 정파를 초월한 학생운동의 단결 노력으로 태동되었던 애학투련의 출범식이 열렸던 건국대에서 빨갱이, 공산분자로 몰려 잔인하게 진압·해산되었던 아픔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 때의 책임감을 떠올리며 힘들게 회고하는 그 뿐만 아니라 구속된 1천 5백 명, 그 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은 평생 그 아픔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울산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양준석씨의 전화 인터뷰 도중, 당시 전방입 소거부투쟁으로 연좌시 위 중 선배인 김세진, 이재호 두 명의 분신 장면을 말할 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불덩이가 되어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구호를 외치던, 구호는 외치나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못하며 두려워간 그들을 보고 받은 충격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신피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며 “사실 6월항쟁의 성공으로 그들 가슴에 당시가 자부심으로 기억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픔을 감싸 안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한다. 몇 번의 제작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것이 많다”며 “제작이 재미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 뿐이더라. 이

인영씨가 당시 나간 집회에서 마주한 진압 전투경찰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이야기를 웃으며 말했지만, 그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님에 더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에게 치열했던 87년의 6월은, 초등학교로 얼마 따라 남대문 시장을 따라갔다가 맡았던 매운 최루탄 냄새로 기억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느끼는 한계도 많다고 하지만 그저 담담히 과거에 치열히 투쟁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솔직히 들려주는 것이 제 할 몫이라는 걸 안다.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단 몇 줄로 짧게 끝나 있지만 그 몇 줄에는 감춰진 피와 땀의 절절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보여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되돌아보게 하고, 따르는 후배들에게는 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제작과정에서 제일 힘든 것은 아무래도 ‘섭외’라고 한다. “인물은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추천을 받아 여러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아무래도 임종석이나 오영식 등 주로 알려진 간부들에게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많이 알려진 이들은 좀 미뤄두고 덜 알려지고 함께 치열한 투쟁을 했던 분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물을 선정한 뒤에는 자료를 모으고 인터뷰를 한다. 그리고 작가 이경미씨와 함께 대본을 작성한 뒤 ‘아이보이스’라는 성우모임에서 목소리 출연을 하면 이렇게 한편의 다큐라마가 완성된다.

현재 다큐멘터리와 드라마가 합쳐진 이러한 형식의 다큐라마는 MBC 라디오의 ‘격동 50년’이 유일한 정도이다. 게다가 기존의 사건중심의 구성이 아니라, 인물중심 프로그램이기에 섭외가 더 어렵다.

〈투사열전〉은 87년 6월항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를 기점으로 점점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70년대를 지나 60년대 까지 당시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것이다.

그렇다고 정리되지 않은 역사를 기록해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작하는 방송도 아니다. 점심 후 나른한 시간에 15분간 지난 민주화운동의 야사를 듣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이거기에 386세대들이 즐겨 들을 것 같다는 추측답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당시 추억이 떠오른다는, 그때가 생각난다는 386세대들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



양준석씨의 말처럼 정신없이 몰아치던 세월을 거쳐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데에는 분명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민초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때 가졌던 생각들과 꿈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신감 있게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앞장 섰으면 좋겠다”며 씩스럽게 웃는 그의 말처럼, 한때 목숨 걸고 싸웠던 ‘운동’이 술자리 안주꺼리로만 남을 수는 없지 않은가.

신지영씨는 이외에도 ‘라디오21’에서 〈라디오해방구〉라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 시민들이 55분짜리 프로그램을 아무 주제로라도 제작해오면 그대로 내 보내 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어떤 내용이든 하고 싶은 말을 55분짜리 테이프에 녹음해 오면 된다고 참여를 권했다.